

번호표 받아 문화공연 즐기며 대기하자

시민평가단·조직위 설문 '10대 개선사항' 사람 많은 곳 '찾아 가는 퍼포먼스' 내비게이션 환승주차장 정보 제공

“박람회 전시관 앞에서 무작정 줄만 세우지 말고, 은행처럼 번호표를 나눠줘 그늘에서 길거리 문화 공연을 즐기며 질 수 있게 하자.”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 이하 박람회) 예행연습 과정에서 드러난 환승주차장 운영 미숙과 전시관 예약 시스템 마비 등 운영상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박람회 조직위는 7일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1~3차 예행연습 과정에 취합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시민평가단 10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전시 시설과 운영, 인력 관리, 문화예술 행사, 전산 시스템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개막전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환승주차장 운영 미숙 ▲순환버스 탑승 지연 ▲전시관 예약 시스템 마비 ▲박람회장·전시관 입장 지연 ▲운영 요원·자원봉사자 교육 부실 ▲문화

행사 등 전시관 안내 미흡 ▲노약자 장애인 배려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1~3차 예행연습 시민평가단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전시관 입장 번호표 배포 등 10대 건의사항을 내놨다.

이를 살펴보면 전시관 번호표를 나눠준 뒤 주변에서 자유롭게 입장 대기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퍼포먼스’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박람회장 입장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대기 시간을 줄이자는 개선안과 장애인·노약자를 특별배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시장 건물이 모두 현대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찾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시관 예약 시스템도 시급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모든 내비게이션에 환승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순환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매일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외국인 거리 행진

여수세계박람회 전시 기간 동안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8000여회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5일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선보인 거리 행진 모습.

있도록 팬플릿을 나눠주고, 퇴장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대한 안내를 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날 분야별로 개선책을 마련해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개막전까지는 모든 운영상 문제점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해양·기후 전문가 여수로... 여수로...

해양 기후변화 심포지엄

바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 세계 해양·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내다보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연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박람회 국제관에서 국제 해양 기후변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

NESCO/IOC) 등 3개 국제해양기구 4년마다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40개국 500여명의 해양과학자가 32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기후변화가 국내 주변해역을 포함한 전 지구의 모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와 대응해야 하는 방법들도 논의된다.

또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과학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해양서비스 활동을 조정하고 국제협력력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학위원회(CIO)의 서태평양위원회(WEST)도 개최된다. 이 총회에는 20개국 8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해양관측, 적조, 연안역 통합관리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토 부는 이번 심포지엄과 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지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합참, 바다·하늘·땅 입체 경호경비작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바다와 하늘, 땅을 망라하는 입체 경호경비작전이 펼쳐진다.

육군 제31사단은 7일 “정중초 합참 의장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중인 현장 작전 지휘본부와 해군 3함대 사령부 등의 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 군 현장지휘본부를 찾은 정 의장은 경호경비 작전현황과

안전지원 활동계획을 보고받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행사의 여수박람회의 성공 보장을 위해 군의 완벽한 경호, 경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의 작전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행사기간 중 단 1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참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2작전사령관을 중심으로 제31사단장, 제3함대 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 육해공군 12개 부대 1500여명이 투입돼 행사장 외곽을 비롯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경호 경비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미리 보는 전시관 ② 아쿠아리움·해양생물관



형형색색 물고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눈 앞에서 감상하는 아쿠아리움의 환상적인 모습.

국내 최대 규모 3만3000 마리 해양생물 전시

◇아쿠아리움

지상 4층 높이에 6000t급 수조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은 바다동물관, 생태관, 체험관 등 3개 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흰고래(벨루가), 바이칼 물범, 남미 물개 등 280여종 3만3000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전시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흰고래는 국내 최초로 공개돼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인수조 ‘딥 블루 씨’(수조용량 3000t)는 머리 위로 펼쳐지는 물 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6000여 마리의 정어리떼가 수조 천장 위로 지나면 마치 바닷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아마존 정글처럼 연출한 에코 테리움도 특색있다. 자연채광이 가능한 이곳에서는 민물 해양생물도 만나볼 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냈다.



지난 5일 해양생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해양 생물의 모습을 생생한 영상과 모형들 통해 감상하고 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제주~태평양~남극 바다 풍경 볼만

◇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1층에 위치해 있고, 순천만 갈대밭을 연출해 놓은 갯벌 생태계존과 바다 생태계존 등으로 꾸며졌다. 길이 25m, 높이 4m 갯벌 영상을 통해 갯벌과 잘피(수초), 갯바위, 갯벌 생물 등을 보여준다.

또 잠수정 실내 모양을 띤 바다 생태계존은 마치 잠수정(심해탐사정)을 타고 바다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4차원(4

D) 입체 영상에는 잠수정이 여수를 출발해 제주도 문섬 연안호 근각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군도까지 신비로운 바다 풍경을 선사한다. 플랑크톤을 생산하는 생태계의 보고 남극 바다 모습이 잇따라 스크린을 장식한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대왕오징어, 귀신고기도 영상도 흥미로운 볼거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애초부터 서민은 없었다

GW1 광산우리밀
GWANGSAN WOORIMIL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지정

“광산 우리밀문화축제에 오셔서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6.1(금)~6.3(일)



1일



2일



3일



제6회 광산우리밀 문화축제
6.1(금)~6.3(일)

송산유원지 및 황룡강 주변 밀밭일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6회 광산우리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우리밀 사진경연대회 · 기간 : 2012. 6. 1 ~ 6. 3 (3일간) · 문의 : 062)960-8251
· 접수 : 2012. 6. 1 ~ 6. 5 (5일간) gswoorimil.kr에서 요강 확인 후 신청서 다운 strategy@korea.kr 접수

전국 우리밀 요리경연대회 (전문, 주부, 학생부) - 11:00 ~ 16:00
· 접수기간 : 2012. 5. 1 ~ 5. 19
· 접수처 : www.gswoorimil.kr 또는 www.koreawhea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strategy@korea.kr 또는 koreawheat@koreawheat.or.kr 이메일 접수
· 문의 : 02)780-1451, 062)960-8057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 2012. 6. 3 (일) 10:00 ~ 12:00
· 접수기간 : 2012. 5. 1 ~ 6. 1
· 문의 : 062)960-8832, 962-7330

우리밀과의 동행, 추억의 밀밭으로

